[새봄 기층 탐방]

아마츄어 축구체계 구축해 '축구의 고향' 진흥에 조력

2024 년 연변주 '빙천컵' 아마츄어 축구 리그 갑급조 경기 장면

중국 '백년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깊은 축구 문화와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로 유명하다. 평일 퇴근후 혹은 주말의 축구장은 축구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하다. 연길시 장백산동로에 위치한 연변금대스포츠문화발전유한회사의 축구장도 연길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축구장중 하나이다.

2015 년에 설립된 연변금대스포츠문화발전유한회사(이하 '금대스포츠')는 축구장 시설 경영, 체육경기활동 기획과 조직, 축구선수 양성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변주내 많은 축구경기를 주관하고 협조해왔으며 지난해에 개최된 연변주 아마츄어 축구 리그는 조기축구팀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일전, 금대스포츠의 온영존 총경리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2025 년에 아마츄어축구대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청소년 축구 훈련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연변 아마츄어 축구의 활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축구 명예의 이 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회 규모 확대로 아마츄어 축구 무대 더욱 넓어진다

2024 년 금대스포츠는 연변축구협회의 주최하에 연변주 '빙천컵' 아마츄어 축구 3 부 리그(슈퍼조, 갑급조, 을급조)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총 28 개 조기축구팀이 참여해 매주 한차례 경기를 진행하고 승강제를 도입해 '피라미드형' 경기 체계를 형성했다. 슈퍼조 우승팀은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 리그에 직행할 수 있어 아마츄어 선수들에게 프로화 통로를 제공한다.

연변의 아마츄어 축구는 규모나 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이 리그를 개최하게 되였다고 온영존은 말했다.

지난해 개최된 연변주직속기관종업원축구대회와 연길시종업원축구대회는 각급 기관단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종업원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큰 환영을 받았다. 금대스포츠는 이런 대회를 협조하면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했는바 단일 경기 최대 2,000 명 시청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2024 년 5 월, 연길시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금대스포츠에서 주관한 연길시 제 1 회 축구협회컵은 지역 민간 축구 열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켰다.

"올해는 이러한 대회를 전면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온영존은 말했다. 온영존은 2025 년 연변주 아마츄어 축구 3 부 리그인 슈퍼조 경기가 4 월에 개막해 5 월말 우승팀을 가릴 계획이고 갑급조와 을급조 경기는 각각 9 월과 11 월에 시작되며 참가팀 규모도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길시 제 2 회 축구협회컵은 16 개 팀에서 24 개 팀으로 확대되고 처음 11 인조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대스포츠는 봄철 9 인조 리그 개최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온영존은 "더 많은 조기축구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축구 생태계를 진정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변주직속기관종업원축구대회와 연길시종업원축구대회도 올해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 청소년 축구는 기반, 과학적 체계로 새싹 육성

연변에 뿌리를 내린 지 10 년 차인 금대스포츠는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실내 표준 경기장도 보유하고 있다. 청소년 축구 훈련 체계는 '년령별 분류, 이중 트랙 시스템'을 핵심으로 매일 단계별 훈련을 제공하며 전직 프로 선수 출신 코치진이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흥미 계발부터 전문 양성까지 포괄한다.

2019 년, 연길시를 대표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21 회 운동회 축구경기에서 팀과 함께 우승한 온영존 총경리.

온영존은 2025 년에 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 청소년 축구 리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축구팀과 청소년축구구락부를 초청해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망주를 발굴할 예정이다. 연변은 과거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는데 이런 전통이 단절되여서는 안된다." 현재 금대스포츠 청소년훈련쎈터는 다수의 중소학교와 협력해 '사회기구 + 학교 축구' 련동 모델을 구축중이다.

■ 정부—기업 협력으로 축구 명함 재정립해야

연변축구의 력사적 배경이 깊음에도 온영존은 "선진 지역에 비해 지역 대회의 상업화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빙천맥주, 천양천광천수 등 지역 기업이 대회에 중요한 지원을 해주었고 올해는 년간 후원 협력을 추진중이다. 더 많은 기업이 아마츄어 축구의 홍보 가치를 알아봐주길 바란다."고 표했다.

연변 아마츄어 축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그는 정부 관련 부문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아마츄어 축구는 피라미드의 기반이다. 참여 기반을 확대해야만 프로 축구에 더 많은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연변축구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지원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는 약 100 개의 조기축구팀이 있다. 전성기보다는 줄었지만 대회 체계 개선과 청소년 축구 훈련 투자 확대로 신생팀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축구의 고향' 연변은 아마츄어 축구의 힘으로 조용히 옛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다.

/ 김파기자

연길시 60 개 중소학교 봄학기 개학 맞이

2 월 24 일, 연길시 60 개 중소학교가 2025 년 봄학기 개학 첫날을 맞이하였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정으로 들어서며 조용하던 학교가 다시 활기를 띠였고 희망 가득한 봄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7 시,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연길시신흥소학교의 1,300 여명 교직원과 학생들이 활기찬 개학 첫날을 맞이했다.

각 학급 교원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교실 안팎에는 온화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차넘쳤다.

5 학년 6 학급 려찬우학생은 "방학동안 즐거웠지만 학교에 돌아와 익숙한 교정과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요. 새 학기에는 컨디션을 잘 조절해 방학 동안 밀린 공부를 따라잡고 학교의 로보트 동아리에 참여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각 학급에서는 개학날 첫 사상정치수업을 진행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에 관한 기본지식부터 새시대 훌륭한 청소년이 되는 방법까지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새 학기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더불어 각 학급 담임교원들은 애국애당, 출행안전, 학교례절, 건강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을 교양했으며 리상과 신념을 세우고 안전예방 의식을 강화하도록 이끌면서 새 학기 준비사업을 다시 한번 다졌다.

9 시 40 분, 장엄한 국가가 울려퍼진 가운데 오성붉은기가 교정에서 게양되였다.

왕조흔 교장은 "새 학기에는 휴식시간 15 분 제도를 전면 시행해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서 최소 2 시간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체건강과 심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5 만여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사상정치수업을 진행하여 새시대 덕육의 주선률을 연주하고 중소학교 사상정치교양 일체화 전면 교육의 새 구도를 열어놓았다.

/ 중국조선족소년보

[화제]

AI 로 숙제, 학생은 기뻐하고 학부모는 걱정… 어떻게 인도할가?

AI(인공지능)는 오늘날 중소학생들이 숙제를 완수하는 '비밀병기'가 되였다. 조사한 데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AI 를 리용해 작문을 쓰거나 문제를 풀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이대로 가면 아이들이 타성적인 사고를 기르고 사고능력을 상실할가 봐 걱정하고 있다.

■ 자세한 설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숙제를 사진으로 찍어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면 몇초 만에 답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는 정보 처리와 데이터 분석, 번역, 문서 작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되였고 AI 숙제도우미는 연산단계가 비교적 구체적인 리과 숙제뿐만 아니라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문과 숙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각 대형 소셜 플래트홈에 어떤 중소학생들은 자주 AI 학습 블로거로 등장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소학교에 입학하자마자 AI 겨울캠프에 참가했고 어떤 학생들은 작문, 영어 말하기, 필사신문, 그림 등 숙제에서 AI 의 도움을 받는다.

■ 사로 참고인가 답안 베끼기인가?

AI 숙제도우미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도는 기쁨과 근심이 섞여있다. "나는 아이들이 AI 를 활용하여 의혹을 풀고 학습 효률을 높이는 것을 지지하지만 아이가 자주 AI 를 사용하여 문제를 검색하면서 타성적인 사고를 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능력을 상실할가 봐 걱정이 된다." 학부모 류선생은 AI 가 제공하는 참고 답안이 매우 구체적이기에 아이가 사로를 참고하는지 답안을 베껴쓰는지는 전적으로 자각에 달려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배녀사도 근심이 가득했는데 아이가 평소에 숙제를 잘하지만 시험만 보면 항상 '비정상적'으로 발휘하여 점수가 리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 학부모들과 소통한 후에야 아이가 AI 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조력자가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고 했다.

■ 규범적인 사용법은 도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각종 AI 람용 현상에 대해 각 학교는 AI 의 숙제 사용 범위, 방식과 비중에 대해 규범했으며 동시에 과정적인 숙제와 실천 숙제를 포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AI 를 사용하도록 인도했다.

북경의 흑지마소학교는 5 학년 학생들에게 정보과학기술, 도덕과 법치 등 다학과 숙제를 포치했는데 학생이 생성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전속 춘련을 창작하는 것이였다.

북경 12 중부속실험소학교도 학생들을 위해 AI 숙제를 포치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AI 를 리용하여 그림을 그려 자신의 눈에 비친 설날을 묘사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AI 로 설날 소비시장과 문화 전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 학교는 조사작업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첫째, 학생은 우선 AI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지난 5 년간 음력설 동안의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추세와 변화 규칙을 총결해야 한다. 둘째, 음력설 문화가 국내외에서 전파되는 경로와 방식을 연구하여 간단한 전파로선도를 작성해야 한다. 례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의 음력설 문화 융합혁신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AI 번역 소프트웨어를 리용해 자신이 작성한 연구보고를 영어로 번역하여 기타 학생들과 교류 및 공유해야 한다.

이 학교의 관련 책임자는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각 단계마다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도구를 활용하여 숙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AI 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학생들을 대신하여 '원클릭 숙제 완성'을 해서는 안된다.

/ 인민넷 – 조문판

[교원수기]

▩ 천재만

교정의 멜로디

"젊은이들은 희망에 살고 늙은이들은 추억에 산다."고 내 나이 일흔 중반을 넘으니 과거사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펜을 들었다.

1956 년 8 월초, 내가 소학교에 입학하던 그날 어머니는 누룽지 한줌을 책보자기에 넣어주면서 배고프면 꺼내 먹으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드리고 선생님 그림자조차 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셨다.

상학종이 울렸다. 아래우 흰저고리치마 소복단장한 쌍태머리 어린 처녀선생님이 입에 호각을 물고 "호르륵 - 호르륵" 불자 학생들은 벌떼마냥 교실로 뛰여들어갔다. 그 처녀선생님은 갓 돈화 2 중 초중을 졸업한 애숭이, 랑랑 18 세도 안되는 김순희선생님이였다.

2 년이 지나 교정의 종은 레루장으로 변신하였다. 그 당시 교장 겸 조선어문 교원이였던 천창범선생님이 손에 자그마한 마치 하나를 달랑 들고 "땡 - 땡 - 땡" 세번 종을 울리면 학생들은 우르르 교실로 들어갔고 "땡 - 땡" 두번 울리면 하학종소리였다.

1960 년 8 월, 우리 집은 당시 돈화시 흑석공사에서 당위 선전위원으로 사업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흑석공사 안락촌으로 이주하였다. 내가 5 학년—6 학년을 다닐 때, 상학시간을 알린 것은 폭탄종소리였다. 교장 조봉구선생님이 마차를 삯내가지고 3305 병기공장에 가서 헐값으로 사온, 일본군이 버리고 간 속이 빈 폭탄이였는데 길이가 한메터반, 변두리가 반아름도 넘는 종이였다. 한번 울리면 온 마을이 쩌렁쩌렁하던 종이였는데 조봉구선생님께서 항상 철나사로 치던 종이였다.

1962 년 8 월초, 내가 돈화 2 중 초중부에서 공부하던 때는 아츨한 전기벨소리였다. 3 년간 이 벨소리와 동반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됨됨이를 배웠다.

1968 년 7 월, 내가 연변한어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받은 곳은 돈화현 흑석공사 만복소학교였다. 상학시간이 되면 당시 교장이였던 려흥복(吕兴福) 선생님이 붉은 비단을 묶은 막대기로 징을 세번 울려 상학을 알리였으며 두번 울려 하학을 알리였다.

1969 년 2 월, 내가 모교에 돌아와 흑석공사 제 2 완전소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그때는 여전히 폭탄종소리였다. 1974 년 3 월, 돈화 2 중에 전근되였을 때는 전기벨소리였다.

2009 년 7 월, 나는 42 년 교원직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집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노라니 가까운 돈화 5 중에서 울려오는 교정의 종소리 — 은은한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교정의 멜로디는 호각소리로부터 레루장소리, 폭탄종소리, 벨소리, 징소리, 나중에는 음악소리로 탈바꿈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정의 멜로디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지식을 배웠으며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이같이 성스러운 민족교육사업에 몸을 담그고 평생을 고스란히 헌신한 이들이 그 얼마였던가! 그때 나를 가르쳐주셨던 은사님들은 하나둘 선학을 타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계신다.

그동안 맺어진 사생지간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 또한 그 얼마였던가!

사람들은 흔히 오늘날의 학생은 그제날 교원 생명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후배들은 지금도 역시 초심을 잊지 않고 떳떳이 이 성스러운 초소를 지켜나가고 있다. 문화는 민족의 얼이라고 했거늘 황혼기에 들어선 필자는 동년배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얼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